

현대 의상 디자인에 나타난 미래 이미지

李 裕 卿

대원공과대학 의상디자인과 전임강사

Future Image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Yu-Kyung Lee

Full-Time Instructor,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Daewon Technical College

目 次

Abstract	미래 이미지
I. 서론	IV. 요약 및 결론
II. 미래사회의 형상	참고문헌
III. 현대 의상 디자인에 나타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future images are embodied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To find out future images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this paper characterized the future society as information society, network society, pluralistic society, and global village.

Cyber design and techno-style expressed through metal or lustrous material which is influenced by informatization symbolize future image. Also, minimalism which is characterized as simplicity and purity affects the contemporary fashion design. The network society which affects to the horizontal and functional social system diminishes the meaning of socio-economic status. Therefore, street fashion has diffused to high fashion, and the formal wear has tendency to be changed into casual wear. In addition, the meaning of status symbol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become decreased.

The pluralistic society affects to search for one's own personality and identity. Also, contemporary fashion design is influenced by post-modernism and deconstructionism. In other words, genderless, ageless, seasonless, and infra fashion appeared. The global village emphasizes extension of universality in life style and search for world quality. So, ethnic fashions appear frequently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Also, the effects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to contemporary fashion design has increased.

I. 서론

의상은 그 시대 문화의 여러 특성을 반영한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예술, 도덕, 가치 등이 반영될 뿐 만 아니라 문화변동은 복식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기술, 건축 그리고 예술양식의 발달 및 변화가 의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시도되고 입증된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 시점은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과도기적 시기이며, 인류는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단순한 변화이기보다는 전세계적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는 기술의 진보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Alvin Toffler의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이 출판된 이후, 급격한 변화는 전세계 인류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¹⁾. 의학적으로 볼 때 충격이란 사고나 심각한 사건에 의한 것으로 신체적 부적응을 수반하는 것이나, Toffler가 말하는 미래의 충격이란 신체적 질환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응전(response)으로서 사람들은 짧은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변화에 압도되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무기력하게 됨을 의미한다²⁾. 또한 Cornish³⁾는 미래의 충격이란 급격한 변화에 의한 심리적 부적응이며, 따라서 보다 정확한 표현은 '변화의 충격'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생활 페러다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페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가 지향해 나아가 할 방향과 비전도 바뀌게 되며,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신질서와 미래 사회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규범 및 제도를 창출해 내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관점, 사고, 실험을 요구하며, 그 과정을 통해 미래의 사회모습을 그려보고 구체적으로 가능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인류는 미래를 탐구하고 그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다. 그러나 Dublin⁴⁾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관찰은 피상적이며,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실제 다가올 미래사회와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미래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이유는 첫째, 미래는 분석되고 일반화된 과거 및 현재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경향이나 추세를 적용시킴으로써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의 예측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모호성 및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둘째, 미래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극복 대상과 함께 여러 대안들의 선별기준을 제공하며 넷째, 여러 기회를 노출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세워던 가정들을 검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⁵⁾. 또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 아이이여를 개발함으로써 비전있는 사고력을 기르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⁶⁾.

이처럼 현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태도는 의상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쳐 현대 의상디자인의 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현대 복식의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나 현대인의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향성이 의상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부각되는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과 현대인의 미래 지향적 태도가 의상디자인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 의상 디자인에 나타난 미래적 이미지를 분석함으로써, 세기말이라는 특수한 시대

1) E. Cornish, *The Study of the Future*, Worke Future Society, 1977, pp. 1-5.

2) L.B. Wehmeyer, *Futuristics*, Franklin Watts, 1986, p.59.

3) E. Cornish, 전계서, p.12.

4) M. Dublin, *Futurehype, A Plume Book*, 1992, p.51.

5) 조선일보, 1996년 4월 24일, 29면.

6) 전득주 외, *미래학 입문 한국미래연구학회*, 평민사, 1992, pp.75-78.

적 상황에서 의상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래 의상디자인의 특징을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미래사회의 형상

현재 세계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기존의 체제, 제도, 가치관, 상식, 행동양식들이 해체되고 미지의 신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에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도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미래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전망해 보는 방법으로는 첫째, 외삽식 예측(extrapolative forecasting), 둘째, 이론적 예측(theoretical forecasting), 셋째, 직관적 예측(intuitive forecasting)이 있다⁷⁾.

미래사회의 특징에 대해 Cornish⁸⁾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재와 차이를 나타낸다고 예측한다. 즉, 통합의 증가, 표준화의 증가, 삶의 질의 향상, 여가의 증가, 서비스산업의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 물리적 이동의 증가, 종교의 쇠퇴, 교육기회의 증가이다. 이처럼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래사회의 형상과 틀이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배규한⁹⁾의 연구를 중심으로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동의 편린들과 미래사회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미래사회의 가장 큰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형상화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정보 사회 (Information Society)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사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념은 정보 사회이다. 정보화란 정보유통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 분배할 수 있는 기술이

고도화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보의 가치가 보다 중요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¹⁰⁾. Daniel Bell은 에너지, 자원, 기계기술의 결합이 공업화 사회를 변모하게 하는 동인인 것처럼, 탈공업화 사회의 전략적 자원은 정보와 이론적 지식이며 이 정보와 이론적 지식은 현대역사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¹⁾. 우리 사회에서도 정보화는 산업구조, 직업구조, 가족구조, 계층구조, 가치관, 문화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들을 야기함으로써 정보사회에 대한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시키고 있다.

Toffler는 제3의 물결이란 개념을 사용했는데, 제1의 물결은 농업이고, 제2의 물결은 산업이며 제3의 물결은 정보를 가리키고 있다. 또한 Bell은 정보사회란 후기산업사회의 맥락에서 발전되는 것이며, 정보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정보기술을 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²⁾. 정보화 사회에서는 산업의 구조가 정보산업 내지 지식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정보통신 관련 직업이 늘어나며, 개인의 생활과 조직의 과업수행이 정보통신체제에 의존되는 정도가 심화됨으로써, 사람들의 간접적, 수단적 접촉이 증대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성되는 것이다¹³⁾.

정보화는 컴퓨터, 멀티미디어, 통신망 등에 의한 정보 및 통신혁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전화, 팩시밀리, 텔레비전, 컴퓨터뿐만 아니라 인터넷, E-Mail, World Web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보하부구조도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정보수단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통신망인 통합하부구조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¹⁴⁾. 이처럼, 먼저 정보산업이 발전하면서 하드웨어적 기반이 조성되고, 이러한 기기가 활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보기술의 응용, 확산이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7) 전득주 외, 상계서, pp. 79-81.

8) E. Cornish, 전계서, pp. 48-49.

9) 배규한, 미래의 틀로 본 세기말의 한국 사회, 21세기모임 세미나, 1995, pp. 13-36.

10) 배규한, 상계서, pp. 18-19.

11) Daniel Bell, 이동만 역, 정보화 사회의 사회적 구조, 한울, 1987, p. 78.

12) Daniel Bell, 상계서, pp. 35-39.

13) 전득주 외, 전계서, p. 221.

14) Daniel Bell, 21C 정보화포럼 특별기고, 조선일보 1995년 3월 14일 & 16일.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보화 과정을 통하여 장차 산업분명과는 다른 새로운 정보문화가 형성되리라는 전망이다. 정보공학은 미래사회의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닐뿐 아니라 최소한 경제의 50%가 정보와 관련을 맺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Alvin Toffler 역시 미래는 통신기술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는 물론 개인의 생활방식과 의미까지 변화시킨다고 보고 있다¹⁵⁾.

정보사회와 관련하여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분류할 때 중요한 구분은 직접(face to face) 커뮤니케이션과 매개된(mediated) 커뮤니케이션 사이의 구분이다. 미래사회는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인 양식이 되리라 예측된다. 또한 매개된 커뮤니케이션은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동시성의 한계를 넘어 비동시적 커뮤니케이션 및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준다¹⁶⁾. 한편, 지금까지는 컴퓨터 같은 첨단 기기가 아무리 고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해도 예술적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보조기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의 예술과는 전혀 다른 사이버 예술¹⁷⁾(cyber art)의 등장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오감기능을 포용한 입체적인 종합예술로, 20세기가 영상의 시대라면 21세기는 가상현실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¹⁸⁾.

또한, 정보화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또래 집단의 개성예술시대를 열어 놓은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전의 뚜렷한 일체감이나 집단적 행동이 약화되고, 성격이 다른 다양한 동류의식그룹이 보다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2. 그물망 사회 (Network Society)

미래 사회는 사회조직의 형태를 중심으로 볼

때 그물망 사회로 전망된다.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은 사회체제에서도 종적, 횡적 사회가 아닌 그물망 사회를 열어 놓은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분업화 원리보다는 고도의 전문성들이 모여 보다 큰 하나를 이루는 협업원리가 능률 향상을 위하여 더 효율적이 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인간관계나 물질유통 관습들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상호의존,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종적 사회는 조직의 경직화를 불러오고, 지나친 횡적 사회는 서로가 무관한 폐쇄사회의 우려가 크다. 그러나 그물망 사회는 다양한 통로가 준비되어 있어 독선이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융통성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상호교류, 상호존중의 문화를 열어 놓았다. 이처럼 그물망 사회란 각 지역이나 영역이 보다 큰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지면서, 다른 지역이나 영역과 기능적으로 상호 긴밀한 의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사회이다¹⁹⁾.

이러한 물리적 network은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조직의 원리와 유형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그물망 사회에서는 중앙과 지방, 중심과 주변, 상급자와 하급자의 위계적 구분이 흐려지고, 각 부분이 모두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점하게 되며, 의사소통 또한 일방통행 대신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의 조직원리는 지배-피지배 관계가 아닌 개별적 자율성에 바탕을 두게 되며, 산업사회의 위계질서 조직에 비하여 보다 수평적이고 기능적인 연결형태의 새로운 조직이 보편화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정치경제적 기준에 근거한 계층, 집단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오히려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집단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사회가 인간의 창의력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간존중 사상의 확산 때문이기도 하다²⁰⁾.

15) 공성진, 21세기 연구의 이론과 실제, 조선일보사, 1991, p. 279.

16) 권태환, 조형계,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1997, pp. 282-284.

17) 인공두뇌학을 뜻하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예술(art)이 결합된 개념으로 컴퓨터 기술이 만들어 냈.

18)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예술의 미래, 1995, p. 31.

19) 한국정보문화센터, 상계서, p. 28.

20) 배규한, 전계서, p. 19.

3. 다원사회 (Pluralistic Society)

사회성원들의 상호작용 양식을 중심으로 보자면 미래사회는 다원사회로 볼 수 있다²¹⁾. 다원사회란 사회적 힘의 근원이나 성원들의 행위양식이 다양한 사회를 뜻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측면에서 다원화와 분산화를 촉진시킨다. 개인적 생활양식이 보다 다양해지고, 개인적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지며, 종전에 누릴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²²⁾.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의 생활양식은 물질적 필요와 함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만연시켰다. 그러나 미래에는 과학기술 및 유전공학의 발달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인간의 가치체계는 탈경제적 성향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21세기에는 성취감, 보람, 명예 등 비물질적 보상체계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며, 물질적 측면보다는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생활양식이 다양해지고 사고방식도 다원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다원사회에서는 사회전체의 목표나 성장 못지 않게 개인의 삶이 중요하므로 인권 또는 인간성 존중이 보다 중요한 가치로 등장할 것이다²³⁾.

또한, 미래사회에서는 표준화, 대량생산, 대량소비, 동질성, 물질주의 등 대중사회의 특징이 다양성, 다품종 소량생산, 선택성, 자아실현 및 복지요구 등으로 바뀌리라고 보인다. 중앙집중, 조직, 표준, 능률, 성장 등에 대한 가치는 분권화, 자율성, 개성, 창의, 발전 등으로 바뀔 것이다. 또한 탈경제적 가치체계로의 이행과 더불어 개인의 관심이나 사회전체의 관심도 경제중심의 목표에서 심리적, 미학적 목표로 전환되며, 쾌적한 환경과 여가 생활 및 예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

24). 예술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욕구도 늘어나는 추세이다²⁵⁾.

이러한 다원사회에서는 서로가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긴밀한 상호의존관계의 구축을 통하여 조화를 모색함으로써만 새로운 질서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을 어떤 단일 기준에 약하여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이며 서로가 고유한 개별적 존재로서 인정할 수 있어야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양식이 공존하는 다원주의적 자세가 필요하므로,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적 태도는 경직된 정형적, 획일적 태도가 아니라 연성의 비정형적 다원적 태도가 될 것이다²⁶⁾.

4. 세계사회 (Global Village)

생활공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래사회는 세계사회라는 개념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활동무대가 세계로 확장되고 지리적으로 국경개념의 의미가 약화되면서, 생활공간과 경제적 시장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고, 생활양식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나가게 된다²⁷⁾. 따라서, 문화적 차이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단일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

Waddington²⁸⁾은 앞으로 100년 이내에 세계도시(ecumeno-polis)가 서서히 형성되어 갈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의 기능이 여러 대륙 사이에 걸쳐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신속한 통신망, 기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여러 도시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기능적 통일성을 가진 도시망으로 연결된다는 견해이다. 지역간 물리적 이동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세계는 정치적 차원의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넘어 문화적 차원의 민족개념으로 재편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문화의 상호교류는 인정하면서도

21) W. Kornhauser, 윤근식, 박용적 역, 대중사회의 정치, 일신사, 1966, p. 5.

22) 배규환, 전계서, p. 20.

23) 21세기 위원회, 21세기의 한국과 한국인, 나남출판, 1994, pp. 113-115.

24) 21세기 위원회, 21세기의 한국, 서울프레스, 1994, pp. 871-873.

25) J. Naisbitt & A. Aburdene, 김홍기역, 매가트렌드 2000, 한국경제신문사, 1993, p. 68.

26) 21세기 위원회, 나남출판, 전계서, p. 221.

27) 배규환, 전계서, p. 20.

28) C. H. Waddington, 이원적 역, 미래의 인류사회, 한마음사, 1993, pp. 120-121.

동질화와는 다른 同空間의 문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지역의 문화가 서로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나타내며 전세계적으로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²⁹⁾.

세계화 사회에서는 생활양식이 유사성을 더해감에 따라 강력한 역반응도 생겨나게 된다. 획일화에 대한 반발, 문화와 언어의 독창성을 내세우고자 하는 갈망, 외래의 영향에 대한 거부감이 그것이다³⁰⁾. 이처럼 세계적인 생활양식의 확산추세와 문화적, 언어적 민족주의의 반발과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의 생활양식이 점차 닮아감에 따라 종교, 언어, 예술, 문학에 대한 집착도 더욱 강해지고, 전통을 더욱 소중히 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사회에서는 각 문화의 구분되는 특징이 높은 가치를 갖게 되고 문화의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문화적 정체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즉, 세계사회에서는 세계문화 지향성과 자국문화 지향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³¹⁾. 이 때 세계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은 외국 또는 이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뚜렷하게 유지하며, 고유한 문화적 향기를 담은 독자적 상품을 생산해 냄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³²⁾. Paul Kennedy도 21세기에는 기술, 교육자원, 광대한 자금 뿐 아니라 문화적 독자성을 갖는 사회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³³⁾.

Ⅲ. 현대 의상디자인에 나타나는 미래 이미지

예측되고 있는 미래의 형상은 현대의 의상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쳐, 미래 이미지라는 복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분류한대

로 미래의 형상을 주요한 4가지 흐름으로 보고 그에 따른 의상디자인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정보 사회(Information Society)와 의상 디자인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정보사회 도래에 의한 문화의 변화는 의상 디자인에도 끝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테크놀로지 및 사이버 환경은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환경으로서, 확장된 문화개념의 시각으로 패션을 보도록 하며 미래를 현대로 끌어들이는 사이버 디자인을 보여준다. 즉, 미래 이미지와 관련된 의상의 등장이 두드러지며, 흔히 cyber 디자인이라 일컬어지는 의상이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관심을 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상현실을 눈으로 보고자 하는 호기심을 갖는다. 따라서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관련된 산업을 미래형 문화상품으로 단연 으뜸으로 꼽게 되며³⁴⁾ 의상디자인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래의 가상현실이 반영된 techno style 의상에 대해 현대인은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

또한 cyber punk라는 하위문화가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사이버 펑크는 20세기 통신 및 제어이론인 인공두뇌학(cybernetics)과 기존 사회에 반항적 성격을 띤 펑크(punk)의 합성어로, 하이테크, 반항적 패션요소, 원시적 요소의 융합으로 보여진다³⁵⁾. 사이버 펑크 문화는 20세기 후반 급속하게 발달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소재의 재창조,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교차, 냉소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요소들로써 현대 의상에 표현되고 있다³⁶⁾. 특히 매탈, 광택소재, 기계적 메시지를 사용함으로써 미래적 이미지를 상징한다. <그림 1>은 Issey Miyake의 작품으로 광택이 나는

29) 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출판, 1998, p. 239.

30) J. Naisbitt & A. Aburdene, 전게서, p. 136.

31) Presidential Commission on the 21th Century, *KOREA in the 21th Century*, Seoul Press, 1995, p. 93.

32) 조은, 정보화시대의 문화, 여성, 나남출판, 1996, p. 152.

33) Paul Kennedy,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Random House, 1993, p. 335.

34) 조은, 전게서, p. 129.

35) 이은영, 확장문화개념에서의 90년대 유행 Fashion 경향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5권 제4호, pp. 54-67, 1997.

36) 한명숙, 이민경, 패션의 사이버 펑크(Cyber Punk) 개념 분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6권 제2호, pp. 207-217, 1998.



<그림 1> Issey Miyake
Collezioni Donna 49, 1995, p.355.

신소재를 사용하여 사이버 문화를 표현한다.

침단신소재에 대한 관심은 의복디자인 분야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다양한 신소재의 의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광섬유로 직조된 옷감은 빛을 발하거나 반짝일 것이며, 느슨해 보이고 호물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직물이 지시에 따라서 몸에 꼭 달라붙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할 것이다. 이것은 전류가 분자 사이의 지역을 최소화시키는 '분자위축'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통해 가능하며 이미 일종의 조정 가능 철제 스프링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의상디자이너들은 진보된 테크놀러지를 기존의 정적인 직물에 결합시킬 것이다³⁷⁾.

뿐만 아니라, 신써사이저(음악합성) 칩, 건반, 스피커가 내장되어 항상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재킷, 심장 박동을 세어 건강 이상 여부를 알려주는 컴퓨터 브로치, 반도체 칩을 내장한 내의 등의

입는(wearable) 컴퓨터 뿐 아니라, 페디스켓으로 만든 사이버 스커트도 등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혀 의상과 관련이 없었던 소재, 요소들이 의상 디자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포스트모던의 해체, 절충, 재생의 영향을 받은 브리콜라주³⁸⁾ 현상은 실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상실해 버린 채 가상이 지배하는 정보 사회의 상황과도 친화성을 지니고 있다. 가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실제와의 연결에 의해 확보되는 안정된 의미망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우주인의 복장을 연상시키는 미래주의 상의에 복고주의 하의를 받쳐입거나 그 반대로 옷을 입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³⁹⁾. <그림 2>는 투명 소재의 후드 달린 상의에 금속이 혼합된 투명 비닐소재의 재킷을 겹쳐입고 하의로는 면소재의 기능적 overall을 입음으로써 과거와 미래 이미지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혼성모방 형태나 지속



<그림 2> Andre Courregé
Elle(한국판), 1994년 11월, p.193.

37) Frank Ogden, 정영문역, *미래가 본 미래 세계*, 매일경제신문사, 1996, p. 94.

38) 서로간에 별 연관성이 없는 요소들을 이리저리 끌어모아 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축해가는 것.

39) 권태환, *조형제, 전계서*, p. 294.

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layered look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잘 볼 수 있다.

현대는 경박단소의 시대로서, 상품의 초경량 초소형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활전반에서 가볍고 얇고 짧고 작은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⁴⁰⁾. 따라서 '90년대 이후 단순화, 최소화 를 특징으로 하는 최소표현기법의 미니멀리즘 (minimalism) 의상이 주된 경향으로 빈번히 제시되고 있다. 최소의 디자인 요소와 최소의 제작 과정을 저점으로써 단순성, 순수성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은 <그림 3>의 Trussardi 작품에서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2. 그물망 사회(Network Society)와 의상 디자인



<그림 3> Trussardi
Fashion Show, 1998, S/S, p.180.

미래사회는 산업사회의 위계질서 조직에 비하여 보다 수평적이고 기능적인 연결형태의 새로운 조직이 보편화되고, 과거와 같은 정치경제적 기준에 근거한 계층, 집단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현대 예술에 있어 강력한 표현수단을 제공하였고 예술의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예술을 대중도 향유하게 되었다⁴¹⁾. 스트리트 패션이 하이패션으로 상향전파되고, 계층의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격식을 차리던 과거와는 달리 생활전반에 걸쳐 소프트함이 확산되고 의복의 케주얼화가 나타나고 있다. 뻗뻗하게 칼라를 세운 드레스셔츠 대신 것이 부드러운 소프트셔츠가 나타나고, 광택이 나고 육중해 보이는 구두 대신 가볍고 편안한 구두가 각광을 받고 있다⁴²⁾.

이러한 의상은 계층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그림 4> 씨 '97 Collection

40) 김종범, *한눈에 보는 21세기 트렌드*, 백사서당, 1996, p. 253.
41) 이은영, *전개서*, p. 56.
42) 김경훈편저, *한국인 트렌드, 새로운 사람들*, 1994, p. 190.

복고풍과 미래주의를 넘나들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고유한 패션을 발견하는 것을 점차 어렵게 하고 있다⁴³⁾. <그림 4>는 '97 F/W부터 유행하고 있는 패딩의류로 '씨' 제품이다. 가볍고 따뜻할 뿐 아니라 대표적 외투 소재인 모직물이나 무스탕에 비해 가격이 대단히 저렴하므로 경제성이 높아 모든 계층에서 구입이 가능한 의복이다. 또한 Jean 소재 의상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고,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현상도 그물망 사회의 계층구분 감소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5>는 Chanel의 작품으로 가장 기능적인 소재를 하이패션에 활용하여 의상의 계층구분 기능을 모호하게 하는 예이다. High fashion 의상에 zipper를 사용하는 의상이 증가하고 셔츠 스타일 의상 보편화되며 운동복 스타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상에서의 기능성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유행의 상향전파현상을 나타내 준다.

또 다른 예로는 흰색 셔츠, 넥타이, 주름치마,



<그림 5> Chanel
Collezioni Donna 49, 1995, p.301.

조끼, 모자 달린 상의, 체크무늬 바지, 무릎까지 오는 체크 무늬 양말, 니트 카디건 등으로 대표되는 school girl look을 들 수 있다. 성인의 의상 디자인에 고등학생 교복의 단정하고 획일화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계층 구분의 모호성과 사회 각 부분이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그물망 사회의 수평적 관계를 보여주어 준다.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대학의 마크가 부착되거나 학교명이 새겨진 의복, 가방을 착용하는 school look의 열풍이 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계층이나 집단의 의미는 점차 퇴색하고 오히려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집단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는 그물망사회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최근 높은 관심을 끄는 부분으로서 국가간, 집단간, 학분간의 구분을 없애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공동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과제로서의 환경문제는 의상디자인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어 생산, 유통, 폐기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제품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에도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환경보호문제는 세계 사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에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3. 다원사회(Pluralistic Society)와 의상 디자인

의복선택의 기준이 단순히 유행의 모방 혹은 트렌드 추종이라는 측면에서 점차 다양한 패션경험과 풍부한 시장정보를 배경으로 자신의 개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주체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이동해가고 있다. 이는 스스로의 패션을 선택, 창조해 가려는 이른바 패션데모크라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기말적 현상과 함께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엘리트주의적인 모더니즘을 버리고 미학적 대중주의를 추구하게 되며, 삶은 필연적으로 파편화되고 역사성을 무시한 절충주의가 범람하게 된다. 그

43) 권태환, 조형계, 전계서, p. 294.

라므로 통상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창조, 붕괴, 해체, 탈중심, 분산, 차이, 불연속, 분열, 분해, 탈중체화 등의 용어로 묘사된다⁴⁴⁾. 그 영향으로 의상에서는 회고적 스타일(nostalgia mode) 또는 그것들의 부분별한 혼성모방(pastiche)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출처인 대중문화 속에는 과거 고급문화와는 달리 문화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므로⁴⁵⁾ 다원사회의 특징이 잘 반영된다고 하겠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큰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해체주의 역시 의상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며, 노출, 파괴, 빈곤, 분해 등의 방법을 통해 나타낸다. 내부를 외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인프라(infra) 현상에 의한 노출적 해체는 반제리 록을 탄생시켰다. Gucci 작품인 <그림 6>은 전형적인 속옷의 소재인 검정 레이스를 겉옷에 사용하여



<그림 6> Gucci
Collezioni Donna 49, 1995, p.158.

파괴 및 노출을 통한 해체를 보여주고 있다. 의상의 파괴적 해체는 사회적 저항을 표현하며 의상을 파괴하고 찢음으로써 전통적 여절과 실용성을 거부한다. 빈곤적 해체는 간소함, 불완전성, 미완성, 꾸미지 않은 남루함 등을 추구하고, 인체를 은폐한다. 분해적 해체는 표면상 부분적, 조각적, 파편적으로 보이지만 의상의 실체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파괴하고, 다시 재구성됨으로써 구조가 뚜렷해지는 외부로부터의 해체를 나타낸다⁴⁶⁾.

최근 의상 디자인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genderless, ageless, seasonless, 내외의 혼용화, TPO의 부조화 등이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경직된 정형화에서 연성의 비정형화, 획일적 태도에서 다원적 태도로 변화되어 가며, 개성, 창의성, 미학적 관심이 중시되는 다원화된 미래 사회를 반영할 뿐 아니라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시대 특징을 보여준다. 예컨대, genderless 경향의 보편화와 함께 couple look 현상도 상승세를 나타낸다. 30~40대의 중장년층도 20대의 의상을 선호하는 'downaging' 현상을 볼 수 있으며, 21세기의 이상형은 '소년의 이미지를 가진 소녀의 모습'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또한 겨울철에 turtle neck의 반소매 또는 소매없는 스웨터나 원피스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여름철에 부츠가 애용되고 있는 현실이 seasonless를 잘 보여준다. 소재의 다양성도 두드러진다. 니트는 과거에는 보온성과 신축성 개념의 기능적 용도의 의복이었으나 현재는 독립된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다. 러시아 디자이너 안드레이 샤로프 작품인 스폰이 장식된 니트 조끼가 그 예이다(그림 7). 내외의의 혼용화는 최대의 유행경향이기도 하며, <그림 8>과 같이 이광희는 formal wear와 romantic dress의 상반된 특징을 한 의복에 표현하고 있다. 의상 디자인의 다원화에 대해 Christian Lacroix는 '정반대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매혹된다. 따라서 천조각을 기워만든 패치워크는 조화의 극치이다.'라는 견해를 밝힌다⁴⁷⁾.

44) 임영방,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 예술문화연구 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예술문화연구소, 1993, pp. 139-151.
45) 정현숙, 양숙희, 20세기 후반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1권 제3호, pp. 504-505, 1997.
46) 김주영, 양숙희, 현대 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제21권 제8호, pp. 1261-1274, 1997.
47) 조선일보, 1997년 12월 7일.



<그림 7> 안드레이 샤로프
조선일보, 1997년 12월 2일

생산에서도 다품종소량생산으로, 패션이 분산되고 트렌드 주기도 매우 짧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다품종 극소량의 추세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들의 변덕스러운 취향을 시사각각 알아내기 위해 변화가 동지에 안테나숍⁴⁸⁾을 운영한다. 또한 기성복의 대명사인 청바지의 맞춤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Levi's사에서는 고객의 신체 사이즈를 재서 컴퓨터에 기록한 후 제작공장에 입력하면 컴퓨터 자동 공정이 청바지를 만들어 낸다. 고객은 색상과 디자인을 직접 선택하며 3주 내로 자신이 주문한 청바지를 배달받게 되는 것이다.

의상의 다양화는 현대 의상에 페러디 기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페러디는 일종의 비평의 형식을 취하는 예술의 모방기법이며, 포스트모더



<그림 8> 이광희 '97 Collection

니즘의 주요 창작 방법중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즉,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과거 속의 이미지를 새롭게 보여주는 창조전략인 것이다⁴⁹⁾. 최근 의상 디자인에서도 과거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페러디 기법이 새로운 창조의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세계사회(Global Village)와 의상 디자인

세계사회는 보편적 생활양식의 확대라는 특징을 강조한다. 특히 정보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가시성이 높은 복식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생활양식소비자의 패션의식은 소재, 품질,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와 같은 요소들의 '세계적 통용성'을 강조하는 데로 옮겨가고 있으며, 'world quality지향'을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⁵⁰⁾.

또한 세계사회의 복식은 서양복식의 조형성이

48) 변화가를 찾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개성을 즉시 알아내 이를 생산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것이 안테나숍이다.

49) 서성복, 포스트 모던 페러디와 차용된 표절, 월간미술, 1992. 3, p. 117.

50) J. Naisbitt & A. Aburdene, 전제서, p. 146.

세계를 지배하는 서구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소수민족의복식양식을 현대복식에 재현시키는 에스닉패션의 등장이라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⁵¹⁾. 한동안 서구 패션의 그늘에 가려있던 아프리카적 요소, 라틴 아메리카적 요소, 아시아적 요소 등이 에스닉 패션의 주류를 형성한다. Louis Feraud의 작품인〈그림 9〉는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수직기법과 겹쳐입기를 통해 에스닉 패션의 일면을 제시한다. 동양적인 오리엔탈리즘 패션은 최근 꽃무늬나 용무늬, 당초무늬, 대나무무늬 등의 문양을 다양하게 응용하거나, 양단, 벨벳 등의 소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태평양 연안 등지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받은 트로피칼 룩, 에콜로지풍이 패션주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는 자연적 흐름을 바탕으로 한 동양복식의 형태미나 아프리카의 원시성에 대한 향수가 복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그림 9〉 Louis Feraud
Fashion News, 1998, 10월, p.89.

수 있다⁵²⁾. 한편 '96년 파리 신인디자이너상을 받은 아프리카 출신 디자이너 줄리 벳은 다민족, 다문화가 뒤섞인 독특한 문화를 가진 아프리카 출신답게 갖가지 천조각을 이어붙이는 패치워크 기법을 즐겨쓰며 아프리카 특유의 민속풍과 현란한 파리의 거리 패션을 접목시킨 작품세계를 펼치고 있다.

동양의 신비주의적 사상 선(禪)이 패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산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느슨한 재단법과 마니멀리즘, 그리고 무채색과 파스텔톤의 사용으로 전체적으로 승려나 구도자를 연상시키는 차림이며, 때로는 부드럽게 늘어지는 소재로 드레이프성을 강조하거나 대담한 사선형 실루엣과 특이한 소재를 사용한다. 또는 에스닉 패션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탈리아 'Etro'의 디자이너 킨 에트로는 '궁극적으로는 세계 각국의 민속문화를 에트로라는 이름 아래 통합시켜 세계인이 함께 입을 옷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힘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패션 철학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일본 디자이너의 세계진출이 두드러졌으며, 우리에게도 매우 고무적이고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현상이다. 그들의 작업은 매우 일본적이면서도 또한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사회의 한 부분으로 한국의의상의 세계진출도 두드러진다. 〈그림 10〉은 설윤형의 '97 S/S 작품으로, 여인의 형태와 우리 문양을 경쾌하고 자유롭게 표현하여 세대의 경계를 뛰어넘으며 우리 옷 특유의 가변성과 표현한계의 무한대를 제시하고 있다. 본격적 국제화 시대가 열림으로써 우리의 의상디자인은 이제까지의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디자인 의식을 합리적, 논리적 사고로 전환시켜 '한국성'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해야함 시점에 와 있다고 보기도 한다⁵³⁾. 또한 '98 F/W 파리 컬렉션에 참석한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는 옷에 단추를 쓰지 않고 스커트처럼 돌려 마감하거나, 보자기처럼 짧게 묶은 스타일 매듭 끈을 벨트나 멜빵으로 이용한 스타일〈그림 11〉, 당의 선을 응용한 스타일 등을 내놓았고, 한국 전통과 모더니티

51) 권기영, 유영선, 현대복식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dp 관한 연구, 복식 26, p.69, 1995.

52) 김민자, 하지수,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복식 21, p.193, 1993.

53) 김인경,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9권 제3호, p.538,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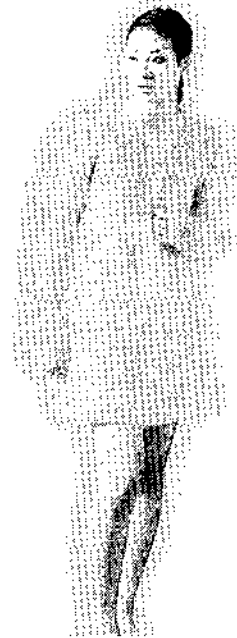


<그림 10> 설윤형 '97 S/S SFAA Collection

를 혼합해온 진태옥은 이조백자를 연상시키는 은은하고 간결한 절제된 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생활한복의 열기나 한복 입기 운동의 진개는 세계사회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갖고자하는 현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즉,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 전통 문화가 배어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전통미를 활용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IV. 요약 및 결론

90년대 들어 패션은 보다 개성화, 다양화되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교차되면서 신소재, 컴퓨터, 전자과학에서 영향을 받은 미래지향적인 면과 자연과 전통, 민속적이고 원시적인 classic, ecology 지향적인 면이 동시에 교차되고 있어, 패션은 각자가 선택하고 스스로 창출해내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관심과 현대인의



<그림 11> 이영희 '98 S/S Paris Collection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의상디자인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현대 의상 디자인에 나타난 미래적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미래사회의 특징을 고찰한 결과, 정보 사회(information society), 그물망 사회(network society), 다원 사회(pluralistic society), 세계 사회(global village)로 형상화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미래 사회적 이미지는 현대 의상 디자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테크놀러지의 활용과 정보사회 도래에 의한 문화의 변화는 의상 디자인에도 끝없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테크놀로지 및 사이버 환경은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환경으로서, 미래의 가상현실에 대한 현대인의 높은 관심은 cyber 디자인이나 techno style 의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하이테크, 반항적 패션요소, 원시적 요소의 융합으로 보여지는 cyber punk라는 하위문화가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은 베탈, 광택소재, 기계적 메시지를 사용함으로써 미래적 이미지를 상징한다. 첨단신소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 다양

한 신소재의 의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경박단소의 시대로서, 최소의 디자인 요소와 최소의 제작과정을 저점으로써 단순성, 순수성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의상이 빈번히 제시되고 있다.

미래사회의 또 다른 형상은 그물망 사회로서, 보다 수평적이고 기능적인 연결형태의 새로운 조직이 보편화되고, 정치경제적 기준에 근거한 계층, 집단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트리트 패션이 하이패션으로 상향전과되고, 계층의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격식을 차리던 과거와는 달리 생활전반에 걸쳐 소프트 룩이 확산되고 의복의 캐주얼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상은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고유한 패션을 발견하는 것을 점차 어렵게 하고 있다. 태닝소재 의상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고, 품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현상도 그물망 사회의 계층구분 감소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이패션 의상에 zipper를 사용하는 의상이 증가하고 셔츠 스타일 의상 보편화되며 운동복 스타일이 증가하는 상황은 의상에서의 기능성 향상과 관련된 것으로 유행의 상향전과현상을 나타내 준다. School girl look은 또 다른 예로써, 성인 의상 디자인에 고등학생 교복의 단정하고 획일화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계층구분의 모호성과 사회 각 부분이 상대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그물망 사회의 수평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원사회의 도래와 함께 의복선택의 기준이 트렌드 추종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패션경험과 풍부한 시장정보를 배경으로 개성을 보다 잘 반영하고 주체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이동해가고 있다. 또한 세기말적 현상과 함께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게되어 탈장조, 붕괴, 해체, 탈중심화, 분산, 차이, 불연속, 분열, 분해, 탈중체화 등이 나타난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큰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해체주의 역시 의상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며, 노출, 파괴, 빈곤, 분해 등의 방법을 통해 나타난다. 최근 의상 디자인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genderless, ageless, seasonless, 내외의 혼용화, TPO의 부조화 등도 이러한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즉,

경직된 정형화에서 연성의 비정형화, 획일적 태도에서 다원적 태도로 변화되어 가며, 개성, 창의성, 미학적 관심이 중시되는 다원화된 미래 사회를 반영할 뿐 아니라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시대 특징을 보여준다. 생산에서도 다품종소량생산으로, 패션이 분산되고 트렌드 주기도 매우 짧아지고 있다. 의상의 다양화는 비평의 형식을 취하는 예술의 모방기법인 패러디 기법을 도입하기에 이르러, 현대 의상 디자인에서도 과거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패러디 기법이 새로운 창조적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사회는 보편적 생활양식의 확대라는 특징을 강조한다. 특히 정보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가시성이 높은 복식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소비자의 패션의식은 소재, 품질,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와 같은 요소들의 '세계적 통용성'을 강조하는 데로 옮겨가고 있으며, 'world quality 지향'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사회의 복식은 소수민족의 복식양식을 현대복식에 재현시키는 에스닉패션의 등장이라는 현상을 조래하고 있다. 서구 패션의 그늘에 가려있던 아프리카적 요소, 라틴 아메리카적 요소, 아시아적 요소 등이 에스닉 패션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트로피칼 룩, 에볼로지풍이 패션주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동양의 신비주의적 사상선(禪)이 패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느슨한 재단법과 미니멀리즘, 무채색과 파스텔톤의 사용, 드레이프성의 강조로 나타난다. 세계사회의 한 부분으로 한국의상의 세계진출도 두드러진다. 따라서 '한국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의상을 창출해냄으로써 본격적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고현진, 김민자, 현대 패션에 나타난 패러디(Parody)에 관한 연구, 복식 25, 1995, pp. 249-268.
2. 공성진, 21세기 연구의 이론과 실제, 조선일보사, 1991.
3. 권기영, 유영선, 현대복식에 나타난 Asian

- Ethnic Fashion에 대한 연구, 복식 26, pp. 69-86, 1995.
4. 권태환, 조형제, 정보사회의 이해, 미래미디어, 1997.
 5. 김경훈편저, 한국인 트렌드, 새로운 사람들, 1994.
 6. 김민자, 하지수, 현대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복식 21, pp. 193-205, 1993.
 7. 김인경,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3), pp. 536-547, 1995.
 8. 김종범, 한눈에 보는 21세기 트렌드, 백산서당, 1996.
 9. 김주영, 양숙희, 현대 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현상(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8), pp. 1261-1274, 1997.
 10. 다니엘 벨, 21C정보화포럼 특별기고, 조선일보 3월 14, 16일, 1995.
 11. 배규한, 미래의 틀로 본 새기말의 한국사회, 21세기모임 세미나, pp. 13-36, 1995.
 12. 서성록, 포스트 모던 패러디와 차용된 표절, 월간미술, 1992, 3.
 13.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 서울프레스, 1994a.
 14.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과 한국인, 나남출판, 1994b.
 15. 이은영, 확장문화개념에서의 90년대 유행 Fashion 경향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4), pp. 54-67, 1997.
 16. 임영방,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술, 예술문화연구 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예술문화연구소, pp. 139-151, 1993.
 17. 전득주 외, 미래학 입문, 한국미래연구학회, 평민사, 1992.
 18. 정보사회학회,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출판, 1998.
 19. 정현숙, 양숙희, 20세기 후반 패션에 표현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3), pp. 502-515, 1997.
 20. 조은, 정보화 시대의 문화, 여성, 나남출판, 1996.
 21.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예술의 미래, 1995.
 22. 한명숙, 이민경, 패션의 사이버 펑크(Cyber Punk) 개념 분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2), pp. 207-217, 1998.
 23. Bell, Daniel, 이동만 역, 정보화 사회의 사회적 구조, 한울, 1987.
 24. Kornhauser, William, 윤근식, 박용직 역, 대중사회의 정치, 일신사, 1966.
 25. Naisbitt, J. & Aburdene, A., 김홍기 역, 메가트렌드 2000, 한국경제신문사, 1993.
 26. Ogden, Frank, 정영분 역, 미리 가 본 미래 세계, 매일경제신문사, 1996.
 27. Toffler, Alvin, 이규형역, 제3의 물결, 1989.
 28. Waddington, Conrad Hal, 이원직역, 미래의 인류사회, 한마음사, 1993.
 29. Bell, Daniel,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76.
 30. Cornish, Edward, *The Study of the Future*, Worke Future Society, 1977.
 31. Dublin, Max, *Futurehype*, A Plume Book, 1992.
 32. Kennedy, Paul,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Random House, 1993.
 33. Presidential Commission on the 21th Century, *KOREA in the 21th Century*, Seoul Press, 1995.
 34. Lyon, David, *The Information Society*, Polity Press, 1988.
 35. Wehmeyer, Lillian B. *Futuristics*, Franklin Watts, 1986.